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음 6월 9일) 제232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내년도 국가예산의 기재부 2차 실사가 진행되는 중요시점에 따라 전북도 실국장 전체가 세종정부청사에서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일 송하진 도지사가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을 찾아 상주하는 실국장들과 함께 도정 주요 예산의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갖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 교육계 법정다툼 '불가피'

내년에도 전국 18곳 대상 평가 예정돼 논쟁은 계속 될 듯
공은 교육부로... "청문 절차 완료 후 요청시 동의 여부 결정"

문재인 정부는 입시위주 교육 및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바로잡고자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공약으로 밝혔다. 하지만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로 인해 교육계 내 법정다툼은 불가피해졌다. 특히 내년에도 전국 18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가 예정돼 있어 재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 될 전망이다. 교육당국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전국에는 자사고 42개교가 운영 중이다. 자사고 재지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에 따라 5년마다 운영성과평가를 받는다. 2019년 평가대상 자사고는 24개교다. 교육부는 올해 운영성과평가에서 70점을 기준 점수로 권고했다. 지난 9일 자사고 본래 취지라 할 수 있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부족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8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올해 평가 대상인 전국의 자사고 24개교 중 11개교가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이에 앞서 지정 취소된 상산고 등 해당 학교들이 강력 반발하며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완료한 후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면, 법령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8일 전북교육청에서는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이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청문에서 상산고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과 재지정 점수 상향 등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상산고의 경우 평가기준 점수 80점에 0.39점 부족해 탈락했다. 올해 평가대상이었던 원주 자사고 중 재지정 취소된 학교는 상산고가 유일하다. 하나고에 이어 민족사관고, 현대중문고, 광양제철고 등은 재지정에 성공했다. 전북교육청은 청문 이후 20일 이내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춘화추실' 실현 예산 확보 분주

전북도, 실국장 세종청사 기재부 예산실 방문 건의
기재부 반응 대응방안 강구 위한 전략회의도 열어

전북도가 민선6기부터 다져온 정책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꽃 피고 열매 맺는 도정(春花秋實 道政)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는 10일 정부세종청사로 전 실국장이 총출동해 기재부 예산실을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선데 이어,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기재부 반응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이 같은 국가예산 확보 활동 배경에는 내년도 국가예산이 부처에서 기재부로 제출되었고, 현재 기재부 2차 예산심의를 진행하는 중요시점으로 도정 핵심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및 대응전략을 모색해 기재부 단계에서 최대 예산을 담기 위해서이다. 먼저, 전 실국장이 기재부 예산실을 방문해 주력산업 체질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 아시아스마트농생명벨리 육성, 여행체험 1번지 및 역사문화 재조명, 새만금내부개발 및 잠버리 성공개회 등 도정 핵심사업에 대해 반영 필요성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 5월에 이전 개소한 전북 세종분소(세종자치회관)로 자리를 옮겨 송하진 도지사, 실국장 등이 함께 사업별 기재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는 목표달성과 함께 예산 부족액 추가 확보를 위해 기재부 실무인

매일 INDEX
2면 - 국토종합계획 호남권 공청회
3면 - 문 대통령, 30대 기업 총수 간담회
4면 - 조선시대 역사문화 복원 착착

靑, '윤석열 청문보고서' 국회에 15일까지 송부 재요청

청와대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뉴스스에 따르면 고인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7월15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요청서 제출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이날 오전 0시부터 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겼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 결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로 1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변호사 소개 의혹, 위증 논란 등이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데 중대한 흠결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변호사를 단순 소개한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